

國際化·開放化 시대의 주역, 釜山外大

金 東 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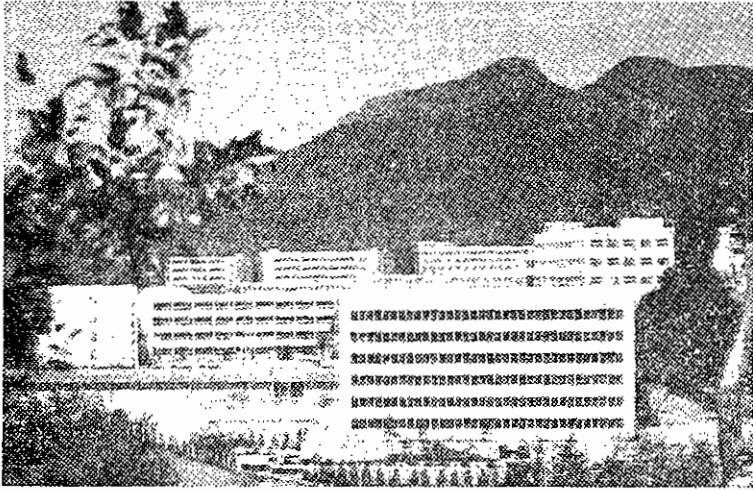
(釜山外大 學長)

1. 建學理念 및 略史

대학의 보편적인 이념이 학문과 사상의 자유, 세계주의적 사고와 행동 양식, 가치 중립적 비판 정신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때, 본 대학은 이러한 대학의 理想的 普遍性을 바탕으로 한 민주적 가치관의 육성과 국제적 적응력 배양에 건학 이념의 기초를 두고 있다. 즉, 본 대학이 지향하는 教育目標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민주 시민의 육성과 국제 교류·협력에 참여하는 국제적 인간의 육성에 있다. 본 대학의 설립 목표가 '민주 이념과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교양 높은 지도적 인격을 배양하여 국가와 민족의 번영과 복지 향상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창조적 인재를 양성함과 아울러 외국어와 외국 문화에 관한 이론과 실재를 연구하여 국제적 이해와 신의를 증진시키고 국제 문화 교류와 인류 문화 향상에 기여할 국민적 품성을 도야함'을 근간으로 삼고 있는 것은 본 대학의 건학 이념이 궁극적으로는 國際的 適應力에 큰 비중을 두고 그것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편으로는 국제 질서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적 위상을 고려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제2의 수도로서 부산이 갖는 지역적 특성을 살리기 위해 설립된 본 대학은 넓게는 생산적인

국제 교류의 촉진이라는 차원에서 배태되고, 좁게는 지역 사회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다. 말하자면 본 대학 설립 당시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고는 외국어를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대학이 거의 전무했으며, 상공업의 요충지인 부산 지역에 전문적인 외국어 교육 기관의 설치가 불가피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본다면 본 대학의 설립이야말로 시대적·사회적인 필연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대학은 우리나라의 지속적이고도 경이로운 국력 신장과 그에 따른 국제 사회에서의 지위 향상으로 인한 국제적 교류·협력의 증진 및 국제 문화의 창달에 대한 능동적 참여라는 국가적 명제를 성취하기 위하여 설립자 故 정태성 장로(박사)의 뜻에 따라 1982년에 개교한 이래, 외국어에 대한 탁월한 구사 능력을 기초로 외국 문화에 대한 학문적이고도 실용적 지식을 갖춘 창조적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의 시대적 소명에 진취적으로 부응해 오고 있다. 설립 당시 본 대학은 영어과·불어과·독일어과·일본어과·중국어과·태국어과·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등의 어학부 7개 학과와 경영학과·무역학과·회계학과 등의 경상학부 3개 학과 및 어학연구소·외국어연수원·사회과학연구소·학생생활연



◀釜山外대는 실용적·전문적인 외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國際的 適應力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학생의 全人的 自我實現을 진작하기 위한 유기적 교과과정 운영을 위해 전력을 쏟고 있다.

구소 등의 4개 부설 연구소를 개설하였으며 초대 학장에 박화술 박사가 취임하였다. 그리하여 1985년에 이르기까지 본 대학은 발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조치로 어학부에 스페인어과·아랍어과·인도어과 등의 3개 어학과를 증설하고, 국문학과·법학과·외교학과로 구성된 인문사회학부와 전산학과를 중심으로 한 공학부 및 영어과·독일어과·불어과·일본어과를 포함한 2부를 신설함으로써 총 5개 학부 21개 학과를 보유한 外國語 特殊大學으로 성장하였던 것이다.

또한 국제회의실·동시통역실·종합시청각실 및 사운드 라이브러리를 연이어 개관하여 학생들의 자율 활동 및 연구 활동을 통한 외국어 구사 능력의 실질적인 제고를 기하는 한편, 무역경영연구소를 추가 개설하였으며 시정각교육원이 운영하는 외국어 특별 강좌를 개설함으로써 지역 사회 발전에 봉사할 수 있는 기반도 갖추게 되었다. 이는 학내적으로 내실있는 대학 발전에 충실을 기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 사회에 대한 봉사의 기능과 협력 체제의 구축이라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1985년 12월 제2대 정해수 이사장의 취임, 1986년 3월 제2대 박화술 학장의 재임으로 본 대학은 이제까지의 성장을 바탕으로 발전의 본 궤도에 오르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1986년 6월 현재 본 대학은 5개 학부, 21개 학과에 입학 정원 1,235명의 규

모로 성장하여 단과대학으로서 그 발전의 한계성을 절감하고 새로운 대학 발전 방향을 본격적으로 모색하는 시점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종합대학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의 첫 단계로 1985년 남산동 소재 학교 부지에 잔디 구장을 착공하여 현 캠퍼스 이전을 목표로 한 종합 캠퍼스 조성 작업을 가시화하였다. 또한 1987년까지 어학부·인문사회학부 및 2부에 각각 포르투갈어과·언어학과·국문학과를 증설하고, 현 캠퍼스 내에 종합 강의등을 준공하는 등의 발전 계획도 동시에 꾸준히 진척시켜 왔던 것이다. 그후 1988년 2월에 제3대 학장으로 김동선 박사가 취임하면서 그해 10월에 러시아어과·경제학과·수학과·통계학과 등이 신설·인가되고 대학원이 설치되어 영어영문학과 및 법학부에 석사과정이 개설되었다. 동시에 법학연구소와 국제문제연구소도 설치되어 대학의 지속적인 발전에 손색이 없는 내실을 꾀해 왔다. 1989년 2월에 서정실 이사가 제3대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그해 10월에 다시 이태리어과·사회체육학과를 개설·인가받았으며 연이어 영어교육 전공, 국어교육 전공, 일반사회 전공의 교육대학원도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1990년에는 어학부에 베트남어과의 개설이 인가되는가 하면 대학원에도 독어독문학과·외교학과·경제학과·전산학과 등의 석사과정이 개설되어 오늘

에 이르고 있다.

2. 現 況

1991년 3월 현재 본 대학은 6개 학부(2부 6개 학과 포함) 32개 학과와 대학원 석사과정 7개 학과, 그리고 교육대학원 3개 학과 및 10개의 부속 기관, 8개의 부설 연구소를 보유하는 명실상부한 외국어 교육 특수 대학으로서 손색 없는 위상을 다져 가고 있으며, 아울러 외국어 교육의 質 向上을 위해 꾸준한 교육 매체 및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로 하여금 국제적 경쟁력을 높여 국가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게 하고 나아가 國際化·開放化 시대 주역으로서의 긍지를 높이기 위해 전력을 경주하고 있다. 본 대학의 현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學 部

본 대학은 장차 있을 종합대학으로의 전환에 대비하여 그 편제를 6개의 학부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영어과·불어과·독어과·스페인어과·포르투갈어과·러시아어과·이태리어과 등으로 구성되는 서양어학부, 일본어과·중국어과·태국어과·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아랍어과·인도어과·베트남어과 등으로 구성되는 동양어학부, 국문학과·언어학과·법학과·외교학과 등으로 편성된 인문사회학부, 경영학과·무역학과·회계학과·경제학과 등의 경상학부, 수학과·통계학과·전산학과·사회체육학과 등의 이·공학부, 그리고 영어과·불어과·독일어과·일본어과·국문학과·전산학과 등으로 구성된 2부가 있다. 특히 어학부의 각 학과들은 해당 언어 사용 지역의 特殊性 및 專門性을 고려하고, 각 학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제적 차원의 文化交流와 協力을 능동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그리고 학문의 성격상 상호 연관성이 약한 각 학부 간의 有機的인 협력 체계를 위해 어학 영역과 비어학 영역 간의 副攻戰制를 활용하고 있으며, 비어학 전공 분야의 학생들에게도 외국어 관련 과목의 이수를 허용하고 또 이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도 본 대학 학부의 특징이다.

2) 大 學 院

일천한 대학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학문과 진리 탐구를 향한 열정은 대학원의 설치로 그 결실을 맺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대학의 대학원은 심오한 학술 이론과 그 응용 방법을 더 한층 연구하고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지도자적 인격을 도야하며 문화 발전과 창조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1988년 11월에 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영어영문학과와 법학과와 석사학위 과정 설치를 시발로 국어국문학과·독어독문학과·경영학과·외교학과·전산학과에 석사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본 대학은 大學教育의 목적을 한층 더 심화시키고 고도의 학식과 연구 능력을 배양하여 국가 사회가 요구하는 專門職 指導者를 배출해 내고 있다. 특히 교육과 연구의 상호 관련성을 무엇보다 강조하는 교육대학원의 설치로 지식의 전수와 독창적 연구 능력을 갖춘 고급 인재의 양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大學院 教育의 質的 秀越性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영대학원을 비롯한 특수대학원 및 박사과정의 설치가 무엇보다 절실하며, 이에 못지 않게 學位 수여 要件도 한층 더 강화시킬 예정이다.

3) 附 屬 機 關

본 대학은 학생들에게 전인적인 교양과 전문 능력 함양 및 제반 활동을 직·간접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속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연 면적 7,983m²에 지상 6층, 지하 1층 규모로 대학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진취적인 대학의 심장으로서 진리 탐구의 전당으로 자리잡아 가는 중앙도서관, 다기종의 컴퓨터를 보유하여 교수의 연구 및 학생 교육에 대한 지원과 대학 행정 업무의 전산 처리 및 여러 분야에 걸친 유용한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담당하는 전자계산소, 학생들의 취업과 부업을 지도하고 산업체와의 유기적인 관련을 통하여 각종 정보와 자료를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학생 취업 대책 내지 홍보 본부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 취업보도실, 시청각 교육에 관한 연구 상담 및 지도를 위한 비디오자습실, 오디오

자습실, 영어·일어 위성 TV 방송청취실, 종합 시청각실, 동시통역실 등의 각종 시청각실을 운영하고 그 자료를 학생들에게 대여해 주는 시청각교육원, 일반 직장인 및 해외 파견자에 대한 외국어 특별 강좌를 개설하여 외국어 회화 능력을 향상시키는 외국어연수원 등이 본 대학의 핵심 부속 기관으로서 학생과 지역 주민의 높은 호응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외에 대학 문화를 창달하는 대학출판부, 학보사, 영자신문사, 교육방송국, 교지편찬국 등을 빼 놓을 수 없을 것이다.

4) 附設研究所

본 대학은 8 개의 연구소를 부설·운영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통하여 여러 분야에서 의욕에 찬 學術活動을 벌이고 있다. 어학연구소는 어학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학술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교수진의 연구를 장려·조력하고 학생의 어학 지도와 상담, 외국어 교육 및 평가와 관련되는 자료를 조사·연구하고 있다. 국내·외의 문화 전반에 대한 학술적 비교·연구를 주도하는 문화연구소는 해외 문화와의 교류를 통해 한국 문화의 실체를 인식·보급시켜 한국 문화의 위상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사회과학연구소는 인간과 사회에 관한 이론과 실체를 학문적으로 연구하여 해당 분야의 교육과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작가는 학생들에게 최근의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이론과 현실을 분석·연구한 결과를 제공하여 바람직한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조력하고 있다. 무역경영연구소는 경영·무역·회계 및 경제 문제에 관한 이론적·실증적인 조사 연구를 하는 동시에 산업 활동에 관한 제반 문제를 산학 협동으로 연구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개발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학연구소는 국내·외의 법학 이론 및 실체를 중심으로 학술적인 연구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법학 발전을 위한 올바른 학리를 추구하고 우리나라 법 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제문제연구소는 한국과 관련되는 국제 관계상의 문제를 연구하고 그에 따른 국제적인 이해와 교류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학

생생활연구소는 학생들의 생활 지도 및 상담과 기타 여러 문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추진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학생 기풍 진작에 기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소문제연구소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중국과 소련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문제를 학술적으로 연구할 목적으로 최근에 개설되었으며 시대적인 흐름에 비추어 그 활동이 주목되고 있다.

5) 國際交流

본 대학은 설립 당시부터 외국어와 외국 문화의 이론과 실체를 연구하여 국제적 이해와 신의를 증진시키고 다원화된 국제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 교류에 남다른 관심과 힘을 쏟아 오고 있다. 1987 년에 태국의 치앙마이 국립대학과 자매 결연을 맺은 이후로 소련, 중국 등의 대학과 문화 교류 및 학술 연구 목적의 교류를 진행시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의 山東省 煙臺市 소재의 煙臺大學 당국자들이 본 대학을 방문하여 학술 교류 및 자매 결연을 위한 여러 문제를 협의하고 장차 있을 대학 간의 교류를 구체화시키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또 세계 주요국 대사들을 본 대학에 초청하여 격변하는 세계 정세 및 자국의 문화에 대한 강연을 수차례 걸쳐 개최하였다. 그밖에 해외 우수 대학과 정기적인 연수 및 세미나를 통해 각종 학술 자료를 교환하는 등 진일보한 국제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본 대학의 교수와 학생들의 해외 파견 및 교환, 연수도 국제 교류의 차원에서 권장·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3. 專門 外國語教育 殿堂으로서의 位相과 展望

본 대학은 해외 체류 경험이 풍부하고 정력적인 연구 의욕을 가진 교수와 학구열에 넘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국제화·개방화 시대를 주도해 나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착실히 쌓아가고 있다. 더욱이 부존 자원이 부족하고 고조되는 국제 정치 질서의 갈등 구조를 헤쳐 나가야 하는 우리 현실에서 외국과의 이해 증진이나 국제 간의 교류와 협력,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외국어 능

력의 향상을 위한 제반 노력은 그 무엇보다도 절실한 시대적 요청임은 재론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대학은 학생들로 하여금 世界市民的인 자세와 안목으로 국제적 감각을 기르고 외국 문화를 진취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게 함으로써 격변하는 국제 사회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대처해 나가는 힘을 기르는 데 최대의 역점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과 민족 문화를 국제 사회에 홍보할 수 있는 언어 구사와 친교 능력의 함양도 크게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한 본 대학의 외국어 교육 체계는 實用的인 言語敎育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專門性 培養에 주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구체적인 예로서 본 대학이 特殊 外國語의 습득에 중점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영어나 불어와 같은 국제적 통용어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지만, 태국어·아랍어·인도어 그리고 중국어와 러시아어 등과 같은 제3세계 지역 및 공산권 언어들에 대한 관심과 그 중요성이 개방화의 엄청난 시대적 조류를 타고 증대되는 현금의 국제 사회에서 이들 언어에 대한 교육의 강화와 실용성 제고에 대한 기대는 실로 시대적인 것이 상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 본 대학은 敎科課程 審議委員會의 상시적인 운영에 의하여 교과과정상의 교수 체계, 특히 실용성 위주의 외국어 학습 체계로 개선해 나가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던 어학 전공 분야의 학생들로 하여금 실용적인 외국어 습득에 주력하던 서상경·법정 계열의 학문 및 전산학을 부전공으로 얼마하게 하여 관련 학문 분야에 있어서 사회적 적응력을 높이고 있으며, 비어학 분야의 학생들은 외국어 영역의 부전공을 선택하도록 제도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이는 학문적 성취도를 유도·강조하는 다른 대학의 교과과정에 비해 훨씬 실용적인 교과과정상의 특색이며 궁극적으로는 학생들로 하여금 효율적인 취업 관리 및 국제적 적응력을 높이도록 배려한 제도적 장치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외국어 능력의 신장을 위하여 각 외국어 학과마다 해당 국가와 연관성있는 외국인 교수들 1인 이상 필수적으로 배치시켜 학생들의 현실 언어 감각을 높여 주고 회화 능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것이다. 또 최신 설비를 갖춘 종합시청각실과 언어실습실, 동시통역훈련실 등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외국어 구사 능력 및 현실 적응 능력 향상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운드 라이브러리에 소장된 비디오와 8,300개가 넘는 오디오 테이프 등의 시청각 자료가 정규 수업은 물론이고 학생들의 자율 활동이나 회화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앞으로 본 대학은 오늘날 한국의 대학이 펼치고 있는 백화점식 종합대학교 방식을 지양하고 전문적이고 특수한 외국어의 효율성을 높이는 外國語 중심의 綜合大學校 체제를 指向할 것이다. 오늘의 대학이 폐쇄적·고답적인 상아탑의 공간에서 벗어나 지적 유연성과 새로운 학문에 대한 기민한 감수성, 그리고 지적 적응 능력을 갖춘 인재를 중심으로 세계의 변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학문의 생산에 매진해야 한다고 한다면, 본 대학이야말로 이러한 시대적인 경향에 부응하는 교육 체계를 강화하고 그것을 실제 교육에 적용시켜 나가는 데 앞장 서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본 대학은 실용적이고도 철저한 외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國際的 適應力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全人的인 自我實現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남다른 관심과 힘을 쏟을 것이다. 이는 본 대학이 국제 교류에 있어서 장차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지도자적 인재를 길러 내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에 진취적으로 부응하고자 하는 의지의 소산이다. 이를 위하여 본 대학은 앞으로 더욱 합리적인 학사 행정을 추구하고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여 개방화·국제화 시대의 주역으로서 손색이 없는, 그리하여 언제나 젊고 패기에 넘치는 학문과 진리 탐구의 전당으로 도약하고자 한다. *